



남원시는 운봉읍을 중심으로 동부권 관광마케팅 협의회를 구성해 통합적이고 자율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환산대첩지 전경.

관광객 유치 팔걸어

남원 동부권 관광자원 활용 통합마케팅 전개

남원시가 동부권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팔걸어 벌였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먼저, 2월 중에 운봉읍을 중심으로 한 4개 지역의 읍·면장과 지역발전협의회,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중사업체가 참여하는 남원 동부권 관광마케팅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통합적이고 자율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산과 연결해 있는 남원 동부권에 위치한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지역은 역사·생태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남원 동부권 지역에는 환산 대첩비지와 피바위, 달모름 마을, 군마동 등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섬멸한 유적지와 아막성, 두라리 고분군 등 가야와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유적이 산재해 있다.

두라리 고분군은 최근 문화재청이 호남지역 가야문화 중에서 처음으로 국가사적지로 예고해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또, 산내면에는 천년고찰이자 호국사찰의 대명사인 실상사가 있다. 실상사는 스님의 수가 3,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사찰이었다. 남원의 특산물인 목기산이 스님들의 발우제작에서 시작되었다. 뱀사골 계곡, 와오마을 천년송도 산내면에 있다.

지리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명상 트레킹 코스, 청소년 생태 교육장으로 각광받는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우리의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국악의 성지, 허브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도 있다. 또한 인근에 대형 숙박업소와 잘 꾸여진 펜션 등이 많이 있어서 객잔 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이 여행업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남원 시내에서 역이동해야 하는 교통문제와 동부권 권역 자체의 유기적인 마케팅 협업체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남원시는 분석하고 있다. 남원시는 4개 읍·면이 협력하여 관광마케팅을 위한 주민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지형적 접근성이 편리한 영남권 여행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관광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이미 대구광역시 관광설명회와 여행업체 초청 캠퍼를 실시하여 영남투어를 개척한 바 있다. 오는 2월 22일에는 부산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영남권 관광객들을 유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관광투어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관광벨트를 묶어 하루, 이틀쯤 잠을 자면서 관광할 수 있는 숙박관광 남원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내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옥숙박체험시설인 남원예촌, 예술이 감칠처럼 흐르는 예가랑길, 고풍한 물결을 머금고 있다는 뜻을 가진 합파우 유원지를 개발해 오감만족 체험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감성·이성 어우르는 소통행정 구현 최선

임실군 SNS 채널 대폭 강화 페이스북 등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이벤트로 인지도 ↑

임실군이 페이스북 등 SNS 쌍방향 소통채널을 대폭 강화하면서 '군민소통 일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임실군은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임실군의 '참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등 SNS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일 군은 페이스북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민중심형 임실스토리' 코너 등 참신한 코너 등을 새롭게 신설, 페이스북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군민 소통을 강화하고 감성과 이성을 아우르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만들어낸 '작지만 큰 걸음 이야기', '김철배 박사님과 함께하는 임실 문

화이야기'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작지만 큰 걸음이야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40분에 게재된다. 오전시간에 글을 올려서 목상처럼 생각해 잡게 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임실문인협회 회원들의 글도 매주 2편씩 게재된다.

'김철배 박사님과 함께하는 임실 문화 이야기'는 임실군청에서 화재사건 근무 중인 김철배 박사의 해박한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2편씩 숨어있는 임실 문화이야기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SNS 이용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로 확장성과 인지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시책과 정책정보를 비롯해 '2018 임실N치즈축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매일 현안사업, 주요정책과 군정방향,

생활정보 등 SNS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포스트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은 뉴미디어의 빠른 매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을 신규 개설, 기존 공식 SNS채널과 연계하여, 다양한 세대 특화, 젊은층의 수요자와 교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우리 임실지역에는 주민들과 타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유익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잘 기획해서 페이스북 등에 올려 임실군의 매력을 적극 알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참여는 홍보팀(☎640-2064) 또는 임실군청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fulimsil>)과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hopefulimsil>)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파 녹이는 전통시장 열기 후끈

임실상인연합회·JTV전주방송 '와글와글 전통시장' 녹화

1일 임실 전통시장에서는 시장상인과 고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시장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전북상인연합회와 임실상인연합회(회장 백기용)가 공동주최하고 JTV전주방송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인 '와글와글 시장이 좋다' 촬영이 진행되면서 시골장터에서의 정과 흥이 넘치는 무대가 마련됐다.

'와글와글 시장이 좋다' 프로그램에서는 임실시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맛집을 탐방하는 한편 시장 중 앙무대에서 상인과 고객들을 대

우로 한 장터 노래방을 진행했다. 또 이날 초대가수로는 강민주, 후니 용이 등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사하며, 추운 날씨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상인과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정보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 다기능 주차장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임실시장만의 특색을 가진 이통 먹

거리 매대 운영도 실시한다.

이에 맞춰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임실전통시장의 특색을 최대한 알리고,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외부 방문객 등이 함께하며, 한파 속 시장열기를 후끈 달궈준다.

심민 임실군수는 "우리 임실군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에 다기능 주차장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이통먹거리 매대 등이 운영되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촬영된 프로그램은 3월 초 오후 6시 40분에 '와글와글 시장이 좋다'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화재사고 제로 선언

전문가 참여 합동안전점검

순창군이 행정·소방·전기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으로 겨울철 화재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실질적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은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군 안전관련 공무원과 순창군 119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지는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화재발생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을 선정했다.

병원 3곳, 요양원 3곳, 목욕탕 2곳, 숙박업소 21곳 등 총 29곳이 포함됐다. 소방분야는 소화기 또는 자동화재탐지소화기 비치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여부,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피난유도등, 비상조명등, 방화문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전기분야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적정여부, 각종 지시 계기류 동작여부, 변압기 과부하 여부, 누설전류 확인, 가동전성 및 지중전선의 맨홀 등 적정성 등을 집중 확인한다.

황수주 군수는 "최근 대형 화재발생으로 군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세심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없는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민선6기 전체 공약이행률 83.6% 돌파... 이행 마무리 박차

순창군이 지난달 31일 군정 영성회의실에서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민선6기 공약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공약이행 평가에는 김용기 평가단장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했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평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평가단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군은 지금까지 총 8개 분야 44개 공약사업 중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등 24개 사업을 완료하고 17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미착수사업은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추진 중인 사업 17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 등 완료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순창군의 전체 공약이행률은 최종 82.6%로 나타났다.

이날 평가단은 공약사업 뿐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및 민생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통하여 행정이 각종 규제와 군민 편의증진에 앞장서 나서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김용기 평가단장은 우리 군의 공약이행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지금부터는 그동안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사업의 사후관리 및 중단 없는 마무리를 주문하며 "민선6기의 정책들이 문화와 복지, 환경분야에서의 체감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만큼 경제와 소득분야에서 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하여 실시구시의 군정철학이 현실화 되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여권사진 머리풀고 찍어도 돼요' 국민편의 제고 규정 대폭 완화

외교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변경된 여권사진규정 시행이 되어 이에 남원시도 변경된 여권사진규정을 적용했다.

변경된 규정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눈썹가림항목 삭제와 두 귀 노출 부분 항목 삭제이다. 그동안 두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머리카락을 묶거나, 귀 뒤로 억지로 넘겨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선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한 뿔테안경지양 항목, 제복, 군복불가,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되었다. 유아사진의 경우 머리길이 처등 항목이 삭제되고 어른과 똑같은 크기 3.2~3.6cm로 같이졌다.

남원시는 바뀐 여권 규정을 통해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